

나의 자존심은 얼마?

남편과 나는 슈퍼를 같이 운영합니다. 물건은 남편이 시장에 가서 사 옵니다. 간혹 물건과 영수증 수량이 맞지 않아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건이 덜 오면 쫓아가서 찾아오면 되지만, 물건이 더 오면 가끔은 ‘그냥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법한데, 우리 부부는 당연히 가져다줍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10년 전쯤의 일이었을 겁니다.

긴팔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되니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약간 더운 가을이었습니다. 슈퍼에서 남편과 교대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담배 대금을 다음 날 줘야 해서 은행에 들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통장으로 거래를 하지만, 그때는 현금 거래를 했습니다. 은행에 들러서 다음 날 줘야 할 담배 대금 130만 원쯤 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주는 돈을 가방에 잘 넣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가방을 챙겨서 슈퍼로 출근했고, 별 생각 없이 담배가 배달되어 왔을 때 은행에서 찾은 돈 130만 원을 쫓습니다. 그런데 담배 배달 아저씨가 10만 원을 더 쫓다면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받아 들고 어떻게 된 것인가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찾은 돈은 130만 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우리 돈이 10만 원 있었던 것인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가방에 10만 원 넣어 뒀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참 생각해 보더니 넣어 둔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은행 직원이 돈을 더 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져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스멀스멀 다른 쪽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찾아 드리지 못해서 헤매고 물건 값 계산도 잘 되지 않아서 틀리고 손님들이 얼굴빛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항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생각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지금 가게 사정이 어려운데, 아이들 치킨 하나 피자 하나 더 사 줄 수 있는데 하는 생각, 그 좋은 과일 하나 못 사 먹고 맨 멍들고 말라비틀어진 것 겨우 먹이는데, 그냥 비싼 과일 사 먹을까 하는

생각, 은행 직원은 분명히 계산이 안 맞아서 곤란을 겪고 있을 텐데, 이러면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교대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정신이 없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을 낼 수가 없어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3시쯤 남편이 교대하러 왔습니다. 끝내 아무 말도 못 하고 몸이 피곤해서 그러니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고 슈퍼에서 얼른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은행을 지나야 하는데 은행 근처에 다가갈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렇게 사느니 자수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다음에 오면 되지’ 하고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밤새 끔끔 앓았습니다. 맛있는 과일과 그녀의 얼굴이 내 눈앞에서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천근만근이어서 도저히 가게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일찍 출근하라고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점점 10만 원은 나의 것으로 조금씩 타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누가 알겠어. 그녀도 연락이 없는 것 봐서는 정말 모르나 보네 뭐! 내가 가졌다고 해도 돈도 많이 버는 은행 직원에게는 별일 없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쯤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아들 종성이가 울면서 뛰어들어 왔습니다.

‘아앙~ 아앙~~.’

‘왜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원영이가 내 유희왕 카드를 가져갔어요! 앙~~.’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원영이가 유희왕 카드를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가져가서는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유희왕 카드는 1장이 아니라 100장쯤 되는 것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형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빌려준 건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형한테 엄청 혼날 것이라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잃어버렸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원영이는 남의 것을 가져가면 다시 안 주는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원영이가 유희왕 카드를 집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친구가 몰래 숨겨 놓고 안 주는 것이라면 가서 달라고 해서 받아 올 수 있지만, 진짜 잃어버린 것이라면 괜히 친구를 의심하는 것이어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믿는 마음으로 원영이에게 말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원영이를 만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친구가 사는 집 앞으로 나를 데려갔고, 원영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원영이구나! 난 종성이 엄마야!”

“예! 왜요?”

“내가 가져간 유희왕 카드 받으러 왔어.”

“잃어버렸는데요.” 역시 생각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가서 아줌마가 찾아봐도 될까?”라고 말했습니다.

원영이는 내 얼굴을 잠깐 보고 생각해 보더니 “잠깐만요” 하고는 3층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원영이 손에 유희왕 카드가 한 움큼 쥐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아이가 카드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원영아, 이건 네 물건이 아니지 않니? 남의 물건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니? 너도 네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겠어? 속상하지 않을까?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영이는 내 눈동자를 쳐다보지 못했고, 다른 곳을 보다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는 원영이를 쳐다보며 아이의 표정이 자꾸 어긋났습니다. 내가 원영이에게 했던 말이 자꾸 내 가슴속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반성하고 있던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막 웃으며 “고생했네! 반성 많이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겠지?”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뇌물 받는 사람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묻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10억 주면 받을 거야? 100억 주면 받을 거야?” 남편은 “내 자존감이 100억밖에 안 돼?”라는 말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문제를 사실대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혼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따듯하게 얘기해 줘서 더 깊이 반성했습니다.

당장 은행으로 가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때가 오후 6시쯤이어서 은행으로 당장 쫓아갈 수는 없었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다행히 그 여직원 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출하는 과정에서 10만 원을 더 받아서 가져왔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은행 직원은 황당해하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들을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망설였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진작 결심하지 못한 내가 참 바보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양심에 걸려서 많은 고민을 한 나는 돌려주고 나니 참으로 흥가분해서 왜 고민을 했나 싶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뒤부터 마음가짐이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청렴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남편과 같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없는 물건이 들어오면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고민하고 사는 것보다 솔직하게 맘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몸도 전보다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묻습니다.

“너의 자존심은 얼마야? 몇 억? 우리 자존심 지키고 살자!”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부끄럽지 않은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